湖畔詩派 汪靜之 시의 근대성 연구*

鄭雨光**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湖畔詩社와 『혜란 바람薫的風』의 출현과 근대성
3. 왕징지의 戀愛詩 분석과 근대성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당신이 다리 위서 풍경을 바라볼 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층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밝은 달이 당신의 창을 장식할 제
당신은 다른 이의 꿈을 장식한다[1)]

위의 「단장斷章」이란 시는 볜즈린卞之琳(1910-2000)의 대표작으로 1935년 10월에 완성된 후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애송시이다. 2연 4행으로 구성된 짧은 형식의 이 시는 원래 긴 시의 일부분이었으나, 이 4행만이 그를 만족시켰기에 독립시켜 한 편의 시를 이루게 하였다고 시인은 회상한다.[2)] 이 시는 함축적인 시의와 질박한 언어로 찰나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인생의

* 이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1) 中國現代文學館 編, 『中國現代文學百家－卞之琳代表作』(北京: 華夏出版社, 1998), 73쪽. 你站在橋上看風景,/ 看風景人在樓上看你.// 明月裝飾了你的窗子,/ 你裝飾了別人的夢.
2) 張賢明, 『現代短詩一百首賞析』(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4), 77-78쪽.

www.kci.go.kr

오묘한 哲理와 智慧를 담고 있기에 해석에 따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시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은 사물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 즉 인간은 모든 행위의 주체이면서 객체도 될 수 있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기에, 중국 전통사상 속의 莊子(369-286 B.C.)의 '호접몽'과도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인식론을 연상시키는 哲理詩라는 주장이다. 1행에서 "다리 위서" 풍경을 바라보는 능동적 주체인 "당신"은 2행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 풍경의 일부분이 되면서 수동적인 객체로 전환된다. 같은 방식으로 2연 1행에서 "밝은 달"을 수용하는 객체인 "당신"이 2행에서 "다른 이"의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 들어가며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난다. "당신"과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 "당신"과 "다른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지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인은 고의적으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단지 "이들 사이에는 대낮으로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능동으로부터 수동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지각으로부터 잠재의식적 자각에 이르기까지 유동하는 형이상학적인 끈이 존재할 뿐이다."[3] 인간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봄과 장식됨을 통하여 묘사한 시로 시인 특유의 미묘한 상상력과 해학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 시를 연애시[4]로 해석하는 것이 이 시의 감상과 분석을 더욱 확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5] 말하자면 1연과 2연의 "당신"이

3) Bonnie S. McDougall, "Yumu ji 魚目集," in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ed. Lloyd Haft (Leiden: E.J. Brill, 1989), 46쪽.

4) 중국에서는 '愛情詩'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愛情'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포괄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戀愛詩'라는 용어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연애의 차이는 전자는 '특정 대상'이고 후자는 '특정 이성'이라는 데에 있다. "사랑이 특정 대상과의 '합일의 욕구'라는 정의에 따라, 특정 이성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는 연애란 '특정 이성과의 합일의 욕구'로 풀이 된다. 사랑은 '특정 대상'이고, 연애는 특정 대상이 '이성'에 한정된다는 사실로써 연애시는 사랑시의 하위 장르에 속한다." 진순애, 「1920년대 연애시와 사랑의 정치학-이상화, 소월, 만해 시를 중심으로」, 『批評文學』 32권 (2009), 332쪽. 따라서 중국의 전통시가에서 애정시는 상당량이 존재했지만 연애시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5·4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백화 연애시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5) 孫光萱, 「斷章」, 辛笛 主編, 『20世紀中國新詩辭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7), 272-273쪽과 任麗芳, 「永遠的風景永遠的斷章—卞之琳《斷章》賞析」, 『安徽文學(評論硏究)』 (2008年5期), 31쪽에서 이 시가 연애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www.kci.go.kr

누구인지 시인 자신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일인인 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의 깊은 함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구태여 중국 전통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봄날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취해 밖으로 나온 여인을 상상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다리 위서 아름다운 경치에 취한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남성들에게 아름다운 연모의 정과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2연으로 인하여 더욱 지지를 얻는다. 낮 동안의 春遊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여인의 세계는 공간적으로는 외부와 격리된 곳이자 시간적으로는 밤이다. 이 남성에게는 창문에 장식된 "밝은 달"만이 이 여인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시공을 초월하여 연모의 정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남성은 낮 동안에 느꼈던 연모의 정을 쉽게 잊지 못하고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여기서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이 남성의 현실 욕망을 대체하고 있다.

"(『詩經』의) 시는 일반적인 해석이 없다(詩無達詁)"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위의 시는 명쾌함보다는 함축성을, 장황함보다는 간결성을, 묘사성보다는 암시성을 추구하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열린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를 단순히 哲理詩로 혹은 연애시로 하나를 선택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시에 대한 감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남녀 사이의 연애 즉 서구적인 사랑이 중국의 근대화와 더불어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코드임이 분명하다면 보다 순수하고 처절한 심상으로 청춘남녀가 자유연애를 쟁취하는 개성해방의 심태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30년대 연애시가 앞서 언급한 볜즈린의 「단장」처럼 낭만주의적 개인의 욕망이 절제됨과 동시에 자기표현을 철저히 차단하는 톤으로 철리적인 관조만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이왕수戴望舒(1905-1950), 허치팡何其芳(1912-1977), 펑즈馮至(1905-1993), 아이칭艾青(1910-1996), 지셴紀弦(1913-2013), 차오바오화曹葆華(1906-1978) 등이 등장하여 각자의 다양한 시각과 정확한 표현형식으로 각종의 연애심리와 정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www.kci.go.kr

이들의 시에서는 낭만적 자유연애의 솔직한 열망과 그것의 진지하고도 노골적인 묘사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왕징즈汪靜之(1902-1996)를 필두로 하여 1922년 중국의 詩壇에 질풍노도처럼 밀려왔던 湖畔詩社의 연애시와 현저한 차별성을 보인다. 湖畔詩社의 시는 봉건시대의 제도적・관습적 구속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자는 5・4의 시대적 패러다임과 맞물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가 보여주는 연애의 감정이란 것이 근대에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고안된 명칭이기 때문이다.[6] 5・4시기 이전에는 혼인관계에 의해 맺어지지 않은 남녀지간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랑의 형식인 "연애"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터부시했기에, 이들의 시가 연애의 근대적 특성과 장르적 특성까지도 수렴했다는 사실은 5・4시기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지평 심지어는 사회정치적인 지평까지도 넓히고자 하는 열정과 고민에 찬 도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왕징즈의 대표적인 시편들에 대한 견고한 해석과 이해를 목적으로 湖畔詩社의 성립과 주장, 연애시에 대한 전통적 시가 관념과 당시 문학계에서의 평가 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왕징즈의 자유연애에 대한 진솔한 표현과 정서적 갈망이 근대성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민족의 근대성과 자기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2. 湖畔詩社와 『혜란 바람蕙的風』의 출현과 근대성

湖畔詩社는 1922년 4월 杭州에서 당시 杭州第一師範學校의 학생들이었던 판모화潘漠華(1902-1934), 펑쉐펑馮雪峰(1903-1976), 왕징즈와 은행 직원이었던 잉슈런應修人(1900-1933) 등 네 명이 신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의기가 투합하여 『호반湖畔』(湖畔詩社에서 출판한 "湖畔詩集"의 第一集)이란 시집을 함께 출판하면서 성립한다. 이들은 모두 스물이 갓 넘은 나이로 그들의 우정과 공통의 취향

6)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제18호)』(서울: 민족문학사학회, 2001), 300쪽.

www.kci.go.kr

을 바탕으로 조그마한 詩社를 결성한 것에 불과했지만, 이 湖畔詩社는 "신문학의 첫 십년의 기간 동안 시가 창작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단체일 뿐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연애시를 창작한 문학 단체"로서 신문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7] 1922년 9월에는 왕징즈의 『혜란 바람蕙的風』이 亞東圖書館에서 출판되었고, 1923년 12월에는 『봄의 노래春的歌集』("湖畔詩集"의 第二集으로 판모화, 펑쉐펑, 잉슈런 등 3인의 105수가 수록됨)를 출판하였다. 1924년 겨울에는 웨이진즈魏金枝(1900-1972)와 셰단루謝旦如(1904-1962)가 湖畔詩社에 가입하였다. 웨이진즈의 『과객過客』이 "湖畔詩集"의 第三集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경비부족으로 인하여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다. 1925년 3월에는 셰단루의 『개자리 꽃苜蓿花』이 "湖畔詩集"의 第四集으로 자비 출판되었다. 1925년 2월에는 잉슈런이 주관한 월간 문예잡지인 『지나 2월支那二月』이 상하이에서 출판되었지만 5·30사건으로 인하여 4期를 못 넘기고 정간되며 사실상 호반시파는 그 활동을 멈추게 되었다. 1927년에 왕징즈는 상하이의 開明書店에서 『고독한 나라寂寞的國』라는 22년에서 25년까지 자신의 시 93수를 수록하고 있는 시집을 출판하는데, 이 시집으로부터 호반시파의 여운을 찾아볼 수 있다.[8]

湖畔詩社의 "호반湖畔"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영국의 "호반 시인"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반 시인"이란 19세기 초엽 영국 북부의 호수 지방에 살면서 자연을 벗 삼아 정치를 멀리하고 서정적인 시를 썼던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사우디(Robert Southey, 1774-1843)와 같은 낭만파 시인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호숫가에서 山水에 감정을 기탁하여 대자연을 노래하는 명상적인 시를 지었다. 특히 워즈워스는 영국 최초의 낭만주의 문학 선언서라고 볼 수 있는 1800년 개정판 『서정가요집』 서문에서 "이 한 편의 시집이 고전주의 舊詩歌에 대한 낭만주의 新詩歌의 전면적인 선전포고서"라며 자신의 시가 사상과 주장을 명확히 표현

7) 陳安湖, 『中國現代文學社團流派史』(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7), 155쪽.
8) 湖畔詩社에 대한 문학사적 설명은 龍泉明, 『中國新詩流變論』(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29쪽과 江露露, 「少年的心扉 愛的悠唱—淺析"湖畔詩派"詩歌中愛的主題」, 『文教資料』(2007年10月號中旬刊), 13-15쪽 참조.

www.kci.go.kr

하였다.[9] 이들의 뒤를 이어 영국에서는 바이런(George Gordon Noel Byron, 1788-1824),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키츠(John Keats, 1795-1821) 등 제2기의 시인들이 나타나 영국의 낭만주의 시가운동이 또 다른 고조기를 맞게 된다. 5·4시기는 전통 시가와의 결별을 통하여 새로운 중국의 신시를 건설하려는 변혁의 시대로, 신시가 외국으로부터 하나의 유사한 모델을 참고하여 이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특히 개성의 해방과 자유, 낭만적 열정과 풍부한 감성, 질서와 논리에의 반항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가는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였다. 중국의 낭만주의 시가운동의 한 갈래로 등장한 湖畔詩社에서도 영국의 "호반 시인"처럼 자연과 연애가 그들의 창작에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왕징즈가 갓 스무 살의 나이에 출판한 『혜란 바람』은 연애의 감정을 진솔하게 읊음으로써 봉건 예교에 저항하는 반역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10] 이 시집의 「서문」에서 그는 아래와 같은 시론을 피력한다.

> 꽃은 한 차례씩 피어난다. 피고 싶으면 피는 것이지, 어찌 사람들이 코가 있어 냄새를 맡는 걸 염려하겠는가? 새는 한 곡씩 노래한다.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는 것이지, 어찌 사람들이 귀가 있어 듣는 걸 염려하겠는가? 꽃구름은 한바탕 늘어선다. 늘어서고 싶으면 늘어서는 것이지, 사람들이 눈이 있어 보는 걸 염려하겠는가?
>
> 갓난아기는 "방긋방긋" 웃고 "으앙으앙" 운다. 나도 이처럼 내키는 대로 마음껏 노래하고 싶은데, 이것은 단지 파도의 출렁임과 같을 뿐이다. 나는 매우 진실하게 '자아'를 내 자신의 시에다 용해시키고자 한다. 내가 쏟아내고 싶은 것이 모두 마음속에서 용솟음하여 붓끝에서 뛰어내린다면, 나는 곧 안심할 것이고 후련할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를 쓰

9) 王改娣 潘麗, 「英國浪漫主義詩歌與"五四"新詩流派」, 『美與時代』(2011년3期), 107쪽.

10) 『혜란 바람』은 1920년에서 1922년까지 쓴 총 164수의 시를 4집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이 중에 연애시의 비중은 사분의 일 정도이다. 이 시집은 그와 4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또 잃을까 걱정하는 사랑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 4명의 여인들은 24년에 결혼하여 평생을 해로했던 푸주인符竹因(1903-1980)과 헤어진 여인들인 차오청잉曹誠英(시에서 B로 별칭됨), 딩더전丁德貞(시에서 D로 별칭됨), 푸후이전傅慧貞(시에서 H로 별칭됨) 등이다. 楊四平, 「紙上談愛 滿紙悲辛—論汪靜之和他的愛情詩」, 『淮北煤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3卷 第5期 (2002年10月), 8-9쪽.

www.kci.go.kr

는 것이다. 만약 써내지 않는다면 나는 미칠 정도로 답답할 것이다![11]

왕징즈의 이 글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진정성을 찾으려는 새로운 안목을 통하여 삶에서 가장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기쁨에 대한 해석을 준다. 이러한 보편적이고도 진실한 '자아'를 막힘없는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에다 용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시에 대한 그의 이해인 것으로, 이것은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정의와 아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혜란 바람』이 출판될 당시 문단에서 명망이 높았던 주쯔칭朱自清(1898-1948)과 후스胡適(1891-1962)는 각각 서문을 써 이 시집의 출판을 환영하였다. 주쯔칭은 왕징즈 시의 핵심을 "자연을 찬송하고 연애를 노래하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문학"으로 파악한다.

> 징즈의 시는 자못 캉바이칭康白情(1896-1945)군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는 시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그의 시 예술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대부분이 성정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철부지'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확실히 스무 살의 활달한 철부지이다.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가 그의 인격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철부지의 천진난만함은 인간 사회의 풍파를 적게 겪어, 자연히 단지 '무관심'한 열정만이 그의 가슴에 가득할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가 자연을 찬송한다. 연애를 노래한다.……오늘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피눈물의 문학이지 아름다움과 사랑의 문학이 아니다. 호소와 저주의 문학이지 찬송과 가창의 문학이 아니다.……징즈는 어린애이기에 아름다움과 사랑이 그의 핵심이다.……그는 일찍이 호소하고 저주해야만 할 그런 광경을 겪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와 눈물의 작품을 쓸 수가 없다.[12]

---

11) 陳紹偉 編,『中國新詩集序跋選(1918-1949)』(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6), 93쪽. 花兒一番一番地開, 喜歡開就開了, 哪顧得人們有沒有鼻子去嗅? 鳥兒一曲一曲地唱, 喜歡唱就唱了, 哪顧得人們有沒有耳朵去聽? 彩霞一陣陣地布, 喜歡布就布了, 哪顧得人們有沒有眼睛去看? 嬰兒'咿喜咿喜'地笑, '咕嘯咕嘯'地哭; 我也像這般隨意地放情地歌著: 這只是一種浪動罷了. 我極眞誠地把'自我'溶化在自己底詩裏; 我所要發泄的都從心底湧出, 從筆尖跳下來之後, 我就也慰安了, 暢快了. 我是爲的'不得不'而做詩, 我若不寫出來, 我就悶得發慌!

12) 陳紹偉 編,『中國新詩集序跋選(1918-1949)』(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6), 83-84쪽. 靜之的詩頗有些像康白情君. 他有詩歌底天才; 他的詩藝術雖有工拙, 但多是性靈的流露. 他說自己"是一個小孩子"; 他確是二十歲的一個活潑的小孩子. 這一句自白很可以幫助我們了解他的人格和作品. 小孩子天眞爛漫, 少經人間底波折, 自然只有"無關心"的熱情彌滿在他的胸懷裏. 所

www.kci.go.kr

주쯔칭이 느끼기에 당시 가장 절실했던 문학은 "피와 눈물의 문학"이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의 문학"은 5·4시대 중국 정세의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기후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쯔칭이 『혜란 바람』의 출현에 놀라 기뻐하며 감탄한 까닭은 "피와 눈물의 문학"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사랑의 문학"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문단의 상황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급선무임이 분명했지만 오직 "피와 눈물의 문학"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쯔칭의 관점이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 모두 병존할 가치와 자유롭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후스胡適(1891-1962)는 서문에서 시문학사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왕징즈의 시를 평가하고 있다. 옛 詩나 詞로부터의 영향이 거의 없는 보다 철저한 '해방'을 이룬 것이 그의 시라 주장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내가 징즈의 시를 읽을 때면 항상 하나의 느낌이 든다. 나는 그의 시가 해방이라는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舊詩(문언시)를 짓던 사람들에 비해 훨씬 철저하다고 생각한다. 오 육년 전에 우리가 新詩(백화시)를 지을 것을 제창했을 때, 우리의 신시는 확실히 아직 '해방'이라는 두 글자에 이른 적이 없었다. 멀리는 원나라 사람들의 小曲長套에 견줄 수 없었고, 가까이는 金冬心(1687-1763)의 '自度曲'에 견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비록 '해방'을 향해 노력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때 백화시에 가입하여 실험을 하였던 사람들은 대개가 옛 詩나 詞를 한번은 지어보았던 인물들로 일시에 옛 詩나 詞의 족쇄와 수갑을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았다. 따라서 민국 칠 팔년(1918년과 1919년)의 '신시'는 대부분이 단지 古樂府식의 백화시이거나, 『擊壤集』식의 백화시이거나, 詞나 曲 식의 백화시이기에 모두 진정한 신시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많은 청년의 신예부대가 일어났다. 청년 新詩人 가운데 캉바이칭과 위핑보兪平伯(1900-1990)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들이 받은 舊詩의 영향 또한 아주 깊다고 할 수 없지만……옛 詩나 詞의 허깨비가 아직도 '나이가 제법 들어 중이 된' 아주 많은 新詩人의 시가 속에 항상 등장하고 있다.……최근 일이년에 이르러 비로소 한 무리의 청년 시인들이 출현했는데, 그들이 받은

以他的詩多是贊頌自然. 歌詠戀愛.……我們現在需要最切的, 自然是血淚的文學, 不是美與愛的文學; 是呼吁與詛咒的文學, 不是贊頌與詠歌的文學……靜之是個孩子, 美與愛是他的核心,……他似乎不曾經曆着那些應該呼吁與詛咒的情景, 所以寫不出血與淚底作品

www.kci.go.kr

> 옛 詩나 詞의 영향이 더욱 박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해방은 더욱 철저하였다. 징즈는 이러한 청년 시인들 가운데 가장 희망이 있다. 그의 시는 간혹 치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치기가 무기력보다는 낫다. 그의 시는 간혹 너무 노골적임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노골적임이 회삽함보다는 심히 낫다. 게다가 치기가 언제나 일종의 신선한 풍미로 충만해 있다, 왕왕 한물갔다고 여기는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선한 풍미로.[13]

주쯔칭과 후스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혜란 바람』의 시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시에 대한 미학적인 전통과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과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정감과 사상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보다는 항상 억누르기를 선택했다. "예의에 어긋나면 보지 말고, 예의에 어긋나면 듣지 말고, 예의에 어긋나면 말하지 말고, 예의에 어긋나면 하지 말라"[14]는 가르침을 숭상했기에 부부간에도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존경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이러하기에 애정시라는 것이 기껏해야 "죽은 아내를 애도하거나 아내에게 기탁하는" 등의 제목을 통해서 애상과 장중한 정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솔직하게 연애를 고백한 것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사랑을 노래한 것은 없었다."[15] 따라서 남녀지간의 사랑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자연스럽게 질식되어 생

13) 陳紹偉 編, 『中國新詩集序跋選(1918-1949)』(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6), 86-87쪽. 我讀靜之的詩, 常常有一個感想: 我覺得他的詩在解放一方面, 比我們做過舊詩的人更徹底得多. 當我們在五六年前提倡做新詩時, 我們的"新詩"實在還不曾到"解放"兩個字, 遠不能比元人的小曲長套, 近不能比金冬心的自度曲. 我們雖然認淸楚了方向, 努力朝着"解放"做去, 然而當日加入白話詩的嘗試的人, 大都是對舊詩詞用過一番工夫的人, 一時不容易打破舊詩詞的鐐銬枷鎖. 故民國六七八年的"新詩", 大部分只是一些古樂府式的白話詩, 一些《擊壤集》式的白話詩, 一些詞式和曲式的白話詩一都不能算是眞正的新詩. 但不久有許多少年的"生力軍"起來了. 少年的新詩人之中, 康白情兪平伯起來最早; 他們受的舊詩影響還不能算很深……但舊詩詞的鬼影仍舊時時出現在許多"半路出家"的新詩人的詩歌裏.……直到最近一兩年內, 又有一班少年詩人出來; 他們受的舊詩詞影響更薄弱了, 故他們的解放也更徹底. 靜之就是這些少年詩人之中最有希望的一個. 他的詩有時未免有些稚氣, 然而稚氣究竟勝於暮氣; 他的詩有時未免太露, 然而太露究竟遠勝於晦澀. 況且稚氣總是充滿著一種新鮮風味, 往往有我們自命"老氣"的人萬萬想不到的新鮮風味.

14) 謝冰瑩 等 編譯, 「論語・顔淵」, 『新譯四書讀本』(臺北: 三民書局, 1993), 195쪽.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15) 朱自淸, 「中國新文學大系詩集・導言」, 『中國現代文論選』(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0), 153쪽.

www.kci.go.kr

명과 열정의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16] 특히 『혜란 바람』의 「그녀 집 대문 밖을 지나며過伊家門外」란 시는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혐의로 문단의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 시에서는 세속의 싸늘한 편견을 무릅쓰고 정인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끊임없이 곁눈질하는 시인의 자아가 진솔하게 표현된다.

> 나는 사람들의 나무람을 무릅쓰고
> 걸음걸음 고개 돌려 내 님을 곁눈질하지요
> 내 얼마나 기뻐 위안이 되고 간담이 서늘하던지[17]

연애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사모하는 님을 보고 싶지만 또 보는 것이 두려운 모순적이고도 복잡한 심리 상태를 잘 포착한 이 시는 당시의 봉건 예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짐승 같은 충동을 고의로 공포했다(故意公布自己獸性沖動)"느니 "변칙적으로 외설 업을 제창했다(變相的提倡淫業)"느니 공격을 받았다.[18] 이에 대해 저우쭤런周作人(1885-1967), 루쉰魯迅(1881-1936), 쭝바이화宗白華(1897-1986) 등은 시의 가치를 도덕적인 잣대로서 제한하는 것은 우둔하고 무지한 행위라며 왕징즈의 편에 서서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루쉰은 "걸음걸음 고개 돌려 내 님을 곁눈질하지요"란 구절이 『金瓶梅』와 같이 음탕한 죄가 있다면 이것은 도학자의 신경과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19] 심지어 그는 이 시가 반봉

16) 애정시의 이러한 전통적인 심미관에 대해 중국과 서구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첫째, 서양인은 연애를 중시하고 연애를 최상의 과제로 삼는 반면에 중국인은 결혼을 중시하고 연애를 경시한다. 둘째, 남녀 간의 애정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표현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구가 사랑의 대상 특히 외모에 대한 찬미나 성애에 대한 갈망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읊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애정 표현 방식에 있어서 완곡하고 함축적일 뿐만 아니라 溫柔敦厚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전통사회는 노인 본위의 사회였기에 효를 강조하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의 애정은 아무런 지위도 차지하지 못했다. 더구나 克己復禮를 강조하는 유가적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간의 사랑은 사회의 모든 가치체계 중에서 어떠한 지위도 점할 수가 없었기에, 애정시의 창작도 사람들에게 중시될 수 없었다. 셋째, 서구의 애정시는 대부분이 결혼 전에 대한 서술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결혼 후에 대한 서술이다. 楊金梅, 「愛情詩的古典形態分析及中西詩觀比較」, 『社科縱橫』 20卷3期 (2005年6月), 135쪽.

17) 王訓昭 選編, 『愛的歌聲-湖畔詩社作品選』(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82쪽. 我冒犯了人們的指謫/ 一步一回頭地瞟我意中人;/ 我怎樣欣慰而膽寒呵.

18) 胡夢華, 「讀了『蔥的風』以後」, 『時事新報·學燈』(1922年, 10期), 24쪽.

19) 魯迅, 「反對"含淚"的批評家」, 『魯迅全集』 제1권(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403-405쪽.

www.kci.go.kr

건적인 연애시인으로서 여전히 대담하지 못하기에, 왕징즈의 뇌리 속에 봉건 예교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했다.[20] 5·4시대에 팽배했던 진취적 기상과 생동감 넘치는 인문사조는 노색이 완연한 봉건예교의 규범들을 깨끗이 세척해 내었다. 신문화운동의 선구자들은 인간이 세상에 나온 것은 고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인식하였다.[21] 이러한 근대성의 영향을 받아 왕징즈를 필두로 하는 호반시파의 청년 기상이 풍부한 환락형 연애시의 모습을 띠고 등장하게 되었다.

3. 왕징즈의 戀愛詩 분석과 근대성

왕징즈의 연애시를 분석할 때 그가 실제 누구와 어떠한 연애를 한 것인지 고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5·4의 시공간에서 연애적 국면을 시로 재구성하면서 발생하는 그의 전략적 글쓰기의 문제, 즉 자유와 정념을 담고 있는 근대적 시 이미지와 언어, 리듬, 형식, 내용 등의 발견이라는 측면에 더욱 주목해야만 한다. 그의 시는 근대의 산물로서 근대적 개인을 정서의 주체로 하고, 억제할 수 없는 자유연애의 충동을 극대화하는 형식이 작품의 근본 구도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보편적 대상에 대한 '연모' '그리움'을 담은 것을 '연시'라고 명명하고 사회적 제도와 정황에서 구체적인 개인과 문화적 알리바이를 표명하는 시를 '연애시'라 정의한다면"[22] 중국의 백화시는 왕징즈의 시에 와서 비로소 '연애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그의 시에서는 근대적 감성과 일상적인 언어로 연애나 연애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시집『혜란바람』과 동일한 제목인 아래의 시는 시적 화자의 연인에 대한 깊은 연모의 정과 그럼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심의 정을 읊고 있다.

---

20) 汪靜之,「魯訊—蒔花的園丁」, 葉蓓,「湖畔四詩人之比較—紀念湖畔詩社成立80周年」,『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1年3月), 17쪽에서 재인용.
21) 錢理群,「試論五四時期'人的覺醒'」,『文學評論』(1989年, 3期), 10-11쪽 참조.
22) 권온,「백석의 연애시편 연구-낭만적 사랑과 여인」,『한국문예비평연구』(2005년, 17권), 116쪽.

www.kci.go.kr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이 혜란 꽃 바람은—
온화하고 향기로운 혜란 꽃 바람은?

혜란 꽃은 정원 안에 깊이 가두어져
그녀의 맺힌 한이 가슴에 가득하지요
그녀의 은은한 향기 살그머니 정원 밖을 나가
사랑하는 나비를 부르고 있어요

고결한 나비는
혜란 꽃 바람의 향기를 맡고
도취되어
그녀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가 어찌 감금된 그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단지 그녀의 바람에 미혹되어
이 비참하고도 달콤한 상심을 꾹 참을 뿐이에요
흐리흐리 나풀나풀 날면서23)

이 시에서 사모하는 연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가 "혜란 꽃"과 그 향기를 자연스럽게 쫓고 있는 "나비"로 상징되고 있다. 인성의 해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연애의 감정과 만족이 박탈된 채로 규방에 깊이 묻혀 지내면서 생활해야만 하는 연인과 시적 화자의 처지는 꽃을 쫓지 못하는 나비의 심정과 다름이 없으리라.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유교적 가르침에 복종해서 감금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연인의 처지가 "온화하고 향기로운 혜란 꽃 바람"으로, 그 바람에 미혹되어도 차마 찾아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비참하고도 달콤한 상심을" 축 처진 나비의 날갯짓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힘없이 "흐리흐리 나풀나풀" 날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시적 화자의 상심의 육체적 느낌을 극대화하는 예민한 감수성과 근대적 심미성이

23) 王訓昭 選編,『愛的歌聲-湖畔詩社作品選』(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40-41쪽. 是那裏吹來/ 這蕙花的風—/ 溫馨的蕙花的風?// 蕙花深鎖在園裏,/ 伊滿懷着幽怨./ 伊底幽香潛出園外,/ 去招伊所愛的蝶兒.// 雅潔的蝶兒,/ 薰在蕙風裏:/ 他陶醉了;/ 想去尋着伊呢.// 他怎尋得到被禁錮的伊呢?/ 他只迷在伊底風裏,/ 隱忍着這悲慘而甜蜜的傷心,/ 醺醺地翩翩地飛着.//

www.kci.go.kr

엿보인다. 꽃향기와 나비란 관계를 설정하여 역설적으로 연애의 감정이란 것이 현실에서 강제로 차폐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연애의 자유로운 욕망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순간들이 비로소 근대적 개인이 근대적 정체성을 느끼는 순간이자 "근대적 개인에 의해 근대 시가 탄생하는 순간"[24]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애는 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반하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관계"[25]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애는 자아와 타자라는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기에 "연애의 현장성을 통해 미숙한 근대적 주체에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자기인식으로 나아가"[26]는 길목인 셈이다.

왕징즈의 연애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근대문화 지향과 봉건문화 잔존이라는 이중적인 것의 불완전한 공존 속에서 연애 감정의 몰입을 통한 정서적 개인주의로 근대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궈모뤄郭沫若(1892-1978)로 대표되는 낭만적 연애시의 관념성·추상성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개인적 정조의 분출과 천편일률적인 획일화의 방식을 통한 자유연애 사상의 표출이 궈모뤄의 입장이었다면, 왕징즈는 자아와 타자의 사적 체험이 극화되는 지점 즉 연애 감정의 몰입에서 시의 입각점이 확보되고 있다. 왕징즈는 「그녀의 눈伊底眼」에서 사모하는 여인의 눈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연애에 몰입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 그녀의 눈은 따뜻한 태양
>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녀가 저를 한번 바라보면
> 얼음 같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걸까요?
>
> 그녀의 눈은 묶인 걸 푸는 가위
>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녀가 저를 한번 훔쳐보면
> 족쇄를 찬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걸까요?

24) 권온, 「백석의 연애시편 연구-낭만적 사랑과 여인」, 『한국문예비평연구』 17권 (2005), 123쪽.
25)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제18호)』(서울: 민족문학사학회, 2001), 300쪽.
26) 김용희, 「조선 유학생 지식인의 연애시와 조선어 현대시어-지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33권 (2007), 135쪽.

www.kci.go.kr

그녀의 눈은 쾌락의 열쇠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녀가 저를 한번 응시하면
제가 낙원 속에 머물게 되는 걸까요?

그녀의 눈은 근심스럽게 만드는 도화선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녀가 저를 한번 쏘아보면
제가 근심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27)

위 시에서 시인은 "그녀의 눈"을 신기하고 생동감 있는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한다. 처음 세 가지 비유는 "따뜻한 태양", "묶인 걸 푸는 가위", "쾌락의 열쇠"로 각각 "얼음 같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족쇄를 찬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하고, "제가 낙원 속에 머물게" 한다. 이러한 비유는 사모하는 여인의 눈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연애의 몰입 중에 서정적인 자아가 느끼는 정서적 개인주의로, 열애에 빠진 환락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인의 눈을 "근심스럽게 만드는 도화선"으로 비유하며 "제가 근심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라며 자문한다. 혹여 있을 실연의 아픔을 반영하는 이 구절은 앞서 등장했던 달콤한 서정적인 자아와 대비되기에 더욱 애처롭게 느껴진다. 자아와 타자의 심리적 거리의 이완을 통해 구현되는 근대적 연애 감정의 복잡한 심적 변화가 이 시에서는 잘 나타난다. 더군다나 이 시가 관념성・추상성에 빠진 낭만적 연애시와 구별되는 확연한 증거는 각 연에서 사용되는 "바라보다望", "훔쳐보다瞧", "응시하다瞅", "쏘아보다盯" 등의 동사의 쓰임에 있다. 애인의 눈길의 변화에 따른 연애의 진전을 암시하는 탁월하고도 정확한 동사의 선택은 연애의 구체적인 현장성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양・가위・열쇠・도화선" 등은 근대적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로 근대적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를 읽어보면 열거와 반복의 기법이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다분히 의도된 운율과 리듬감으로 일상의 구어체를

27) 公木 主編, 『新詩鑒賞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2), 115쪽. 伊底眼是溫暖的太陽;/ 不然, 何以伊一望着我,/ 我受了凍的心就熱了呢?// 伊底眼是解結的剪刀;/ 不然, 何以伊一瞧着我,/ 我被鐐銬的靈魂就自由了呢?// 伊底眼是快樂的鑰匙;/ 不然, 何以伊一瞅着我,/ 我就住在樂園裏了呢?// 伊底眼變成憂愁的引火線了;/ 不然, 何以伊一盯着我,/ 我就沉溺在愁海裏了呢?

www.kci.go.kr

적극 활용함으로써 근대적 시형식을 모색한다.

연애적 상황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닌 슬픔도 동반된다는 진솔한 표현이 「무제곡無題曲」이란 시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5·4시대 신문화의 자유의식과 연계되어 낭만적·이상적 연애의 열망만을 거칠게 토로하는 당시의 시와 달리 연애의 구체적 주체와 객체의 사회적 관계를 왕징즈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슬픔이 한없이 넓은 하늘이라면
　즐거움은 하늘 가득한 별입니다
내 사랑아! 나와 당신은
　저 별 숲의 밝은 달입니다

깊숙한 뿌리가 슬픔이라면
　짙푸른 잎은 즐거움입니다
내 사랑아! 그 위서 피어나는
　꽃은 당신과 나입니다

바다의 물이 즐거움이라면
　끝이 없는 바다는 슬픔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당신과 나 두 사람입니다, 내 사랑아!

슬픔이 무수한 벌집들이라면
　즐거움은 달콤한 벌꿀입니다
내 사랑아! 거기서 일하느라 바쁜
　벌들은 나와 당신입니다[28]

1연에서 슬픔을 "한없이 넓은 하늘"로 즐거움을 "하늘 가득한 별"로 비유한 후 "나"와 "당신"이 바로 "저 별 숲의 밝은 달"이라 한다.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28) 王訓昭 選編, 『愛的歌聲-湖畔詩社作品選』(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171-172쪽. 悲哀是無邊的天空,/ 快樂是滿天的星星./ 吾愛! 我和你就是/ 那星林裏的月明.// 深深的根就是悲哀,/ 碧綠的葉是快樂./ 吾愛! 生在那上面的/ 花兒就是你和我.// 海中的水是快樂,/ 無涯的海是悲哀./ 海裏游泳的魚兒就是/ 你和我兩人, 吾愛!// 悲哀是無數的蜂房,/ 快樂是香甜的蜂蜜./ 吾愛! 那忙着工作的/ 蜂兒就是我和你.

www.kci.go.kr

연애의 감정은 이러한 시공간화 작업을 통해서 독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밤하늘을 훤히 비추는 "밝은 달"로 탄생한다. 아울러 "하늘"과 "별"의 관계처럼 슬픔과 즐거움도 연애 과정 중에 불가분의 관계이다. 유사한 표현효과를 얻기 위해 2연에선 "뿌리"와 "잎"을 3연에선 "바다"와 "물"을 각각 슬픔과 즐거움에 비유한다. 다만 문장구조상 비유대상을 비유본체 앞에 놓음으로써 표현상의 단조로움을 피하며 다양성을 확보한다. 열애 중인 두 사람을 각각 "그 위서 피어나는 꽃"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로 비유하며 연애의 생기발랄한 작용을 연상시킨다. 다시 1연과 같은 문장구조로 돌아온 마지막 연에서는 "벌집"과 "벌꿀"로 슬픔과 즐거움을 비유하며 두 연인의 사랑을 "거기서 일하느라 바쁜 벌들"로 형상화한다. 이것은 두 연인의 사랑이 바야흐로 슬픔과 즐거움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4. 맺는 말

본 연구는 30년대 볜즈린의 대표작 「단장」이라는 시가 연애시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전통시가의 심미적 기준에 영향을 받아 자유연애의 심태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는 완곡하고 함축적인 표현에 의지하여 자기표현의 도입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연애의 감정을 간결하게 읊고 있기에 哲理詩로까지 외연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볜즈린의 시풍과 비교하여 30년대에는 복잡한 테크닉과 현대적인 정감을 가지고 다양한 연애시가 등장하였지만, 낭만적 자유연애의 열망과 그것의 진지하고도 노골적인 묘사는 드물었다. 오히려 20년대 湖畔詩派 특히 왕징즈의 연애시는 당시의 봉건예교적 풍조에 저항하여 자유연애의 진솔한 표현과 정서적 갈망을 보여준다. 자유연애는 인성의 해방에 눈을 뜨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근대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로, 무엇보다도 연애 감정과 함께 근대를 시작하자는 전략적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 결코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왕징즈가 주창한 연애시는 당시 반제・반봉건이란 5・4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들과 동보성을 갖는

www.kci.go.kr

새로운 패러다임의 키워드로 5·4 현상과 결코 무관한 장르가 아니었다. 연애적 국면을 거리낌 없이 시로 담아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일체의 비합리적인 봉건예교의 가치를 자유연애의 정념으로 추방하면서 제한 없는 자유와 정념의 발산을 통하여 억압된 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적 성과들이 중국근대시사에서 산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왕징즈의 연애시가 근대적 특성과 장르적 특성까지도 수렴했다는 사실은 연애적 국면을 시로 재구성하여 연애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념적·추상적 연애의 감정을 과도한 정감과 천편일률적인 획일화의 방식을 통해 방출하는 것이 궈모로를 비롯하여 동시대 대부분 시인들의 글쓰기였다면, 왕징즈는 연애의 구체적 주체인 자아와 객체인 타자의 사회적인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자유로운 연애의 욕망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근대적 정체성을 느끼는 근대적 개인을 파악한다. 따라서 연애 감정의 몰입을 통해 본 미숙한 근대적 주체인 개인은 연애가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도 수렴하는 "비참하고도 달콤한 상심"의 복잡한 심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백화시는 왕징즈의 시에 와서 비로소 '연애시'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參考文獻〉

Haft, Lloyd, ed.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Leiden: E.J. Brill, 1989.

胡夢華, 「讀了『蔥的風』以後」,『時事新報·學燈』(1922年, 10期).

『魯迅全集』 제1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陳紹偉 編, 『中國新詩集序跋選(1918-1949)』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6.

王訓昭 選編, 『愛的歌聲-湖畔詩社作品選』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錢理群, 「試論五四時期"人的覺醒"」, 『文學評論』(1989年, 3期).

謝冰瑩 等 編譯, 『新譯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 1993.

辛笛 主編, 『20世紀中國新詩辭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7.

www.kci.go.kr

陳安湖,『中國現代文學社團流派史』,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7.
中國現代文學館 編,『中國現代文學百家－卞之琳代表作』, 北京: 華夏出版社, 1998.
龍泉明,『中國新詩流變論』,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葉蓓,「湖畔四詩人之比較—紀念湖畔詩社成立80周年」,『南京師範大學 文學院學報』(2001年3月).
公木 主編,『新詩鑒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2.
楊四平,「紙上談愛 滿紙悲辛—論汪靜之和他的愛情詩」,『淮北煤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3卷 第5期 (2002年10月).
張賢明,『現代短詩一百首賞析』,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4.
楊金梅,「愛情詩的古典形態分析及中西詩觀比較」,『社科縱橫』20卷3期 (2005年6月).
江露露,「少年的心扉 愛的悠唱—淺析"湖畔詩派"詩歌中愛的主題」,『文教資料』(2007年10月號中旬刊).
任麗芳,「永遠的風景永遠的斷章—卞之琳《斷章》賞析」,『安徽文學(評論硏究)』(2008年5期).
朱自清,「中國新文學大系詩集・導言」,『中國現代文論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0.
王改娣 潘麗,「英國浪漫主義詩歌與"五四"新詩流派」,『美與時代』(2011년3期).
김동식,「연애와 근대성」,『민족문학사연구(제18호)』, 서울: 민족문학사학회, 2001.
박운석,「중국 현대 애정시 연구」,『중국어문학』45집 (2005. 6), 533-551쪽.
권온,「백석의 연애시편 연구-낭만적 사랑과 여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한국문예비평연구』17권 (2005), 7-29쪽.
김용희,「조선 유학생 지식인의 연애시와 조선어 현대시어-지용의 경우」, 한국문학연구학회,『현대문학의 연구』33권 (2007), 111-142쪽.
진순애,「1920년대 연애시와 사랑의 정치학-이상화, 소월, 만해 시를 중심으로」,『批評文學』32권 (2009), 329-352쪽
정성은,「중국 현대 애정시 속 고전 원형 이미지의 현대적 변용 연구」,『중국어문학지』37집 (2011), 455-486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aluate Wang Jingzhi's 汪靜之(1902-1996) representative love poems, especially focusing on his concern for the free, the romantic,

www.kci.go.kr

and the western style love. His love poetry, inspired by the tide of the May 4th Movement that asserted the ideological emancipation and anti-feudalistic society, broke away from the restraints of traditional custom between man and women and came to literary prosperity. His poetry w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head toward Chinese modernity, since he found out Chinese equivalent for Western romantic love affairs and developed the private self with modern individual sensitiveness in his many touching and brokenhearted love poems.

This study also tries to find the distinctions of love poems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society, and summarize the caus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spects of two cultures, women social status, and different aesthetic tastes. Wang Jingzhi's love poetry of the 1920s wa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relativism between subject(self) and object(loving partner). At the same time, this poetry was characterized by its superb tendency to present sense impression of love affairs as well as experiencing sensual poetic sentiment. Therefore, it wasn't until Wang Jingzhi's arrival that modern Chinese poetry began in earnest to have the genre of love poem in its fullest sense.

Key Words: Wang Jingzhi's Poetry, Lakeside Poets, Orchid Winds, Love Poems, Fragment

이 논문은 2015년 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